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Hyundai yards exceed annual \$14.9bn newbuilding target with five months in hand**

현대중공업이 LNG선 2척을 수주하며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목표였던 149억원을 달성함. 아시아 지역 선주는 팬오션으로 추정되는데, 3.98억달러에 발주함. (Tradewinds)

Evergreen eyes \$1bn containership feeder haul as yard prices rise

대만 Evergreen이 scrubber-fitted 피더 컨테이너선 26척의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됨. 선가가 두달사이 40%나 치솟았기 때문임. 선가는 10억달러, 납기는 2025년말까지일 전망임. 현대미포조선을 포함한 5개사와 논의중임. (Tradewinds)

Aramco delays bid process for giant offshore Zuluf development

일본 Modec과 Toyo는 FPSO EPCI 서비스 협작법인 설립을 논의중에 있음.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임. (Upstream)

Clarksons sees new wind turbine vessel order cycle as projects get green light

Clarksons에 따르면, WTIV 발주 사이클이 오고 있음. 12MW 이상의 대형 터빈도 증가할 전망임. 2020년부터 누적 22척, 옵션분 12척이 발주됨. (Tradewinds)

Japanese heavyweights eye FPSO alliance

일본 Modec과 Toyo는 FPSO EPCI 서비스 협작법인 설립을 논의중에 있음.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임. (Upstream)

선박 수주 늘어난 현대중공업 기술인력 수급 확대

현대중공업은 지난 하반기부터 기술연수생을 모집하지 않다가 올해 선박 수주가 재개되며 기술연수생의 정원을 20% 늘려 모집함. (파이낸셜뉴스)